

2019. 4. 3. [수] 언론보도

'DMZ 평화둘레길' 이달 말부터 일반에 단계적 개방



[영커]

남북 분단으로 접근할 수 없던 땅, 비무장지대, DMZ가 이달 말부터 개방됩니다.
지난달 KBS가 보도해 드린 대로 정부가 'DMZ 평화둘레길'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통해안이 한눈에 보이는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입니다.
철조망 바로 옆으로 해변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고성 DMZ 평화둘레길 조성 현장입니다.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해 금강산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7.9km 구간입니다.

중부 코스는 강원도 철원 백마고지를 지나 화살머리고지로, 서부 코스는 경기도 파주 임진각에서 출발해 도라산을 거쳐, DMZ 내 대성동 마을까지 이어집니다.

[김현기/행정안전부 자치분권실장 : "장기적으로는 DMZ와 인근 접경지역을 따라 한반도를 동서로 횡단하는 세계적인 생태 평화체험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레길 개방은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정부는 3개 지역 중 우선 DMZ 밖에 있는 고성 코스만 이달 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파주와 철원 지역의 경우 DMZ 구간이 포함돼 관광객 안전 등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개되는 둘레길 모두 군사분계선 남쪽이라 북한과의 협의는 없었지만, 유엔사와는 긴밀히 공조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진형/국방부 정책기획관 : "장소를 선정하면서부터 현장 지역을 유엔사와 협동으로 점검을 수차례 했고요.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준비하도록 하고 이걸 경호병력 차량에 휴대해서..."]

정부는 고성 둘레길에 대한 시범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철원과 파주 코스의 운영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정전 후 첫 'DMZ' 개방...평화둘레길 조성

김대영

【앵커】

남북분단의 상징으로 70년 가까이 사람의 발길이 끊겼던 비무장지대가 처음 민간에 개방됩니다.

강원도 고성과 철원, 그리고 파주를 잇는 평화둘레길이 조성됩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일만 이천 봉의 기암괴석들로 웅장함을 자랑하는 금강산이 훤히 보이고,

산자락의 아름다움은 해금강으로 더 이어집니다.

손에 잡힐 듯 가까운 북녘 풍경을 철책이 가로막고 있지만, 수려함까지 막을 순 없습니다.

비무장지대, DMZ 고성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풍광을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미지의 땅이자 자연이 살아 숨쉬는 이곳, 평화둘레길을 단계적으로 개방합니다.

강원도 고성과 철원, 경기도 파주 등 3곳을 잇는 42KM 둘레길은 고성 구간의 경우 DMZ 남쪽에,

나머지 지역은 비무장지대 안쪽에 조성돼 금단의 땅을 직접 밟을 수 있습니다.

오는 27일 고성 구간부터 개방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김현기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 : 남북분단의 상징이었던 DMZ가 평화적 이용을 통해 한반도 평화변명의 전진기지를 넘어 세계생태평화의 상징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는 코스마다 자연과 역사, 문화재 등에 담긴 이야기를 발굴해 '스토리텔링 관광상품'을 선보입니다.

도로와 철책길은 가급적 그대로 놔둬 생태계를 보존할 방침입니다.

[최종환 / 경기도 파주시장 : DMZ 지역의 천혜의 자연,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역사, 문화유산을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레길 명칭은 국민 공모를 통해 결정됩니다.

북녘 풍경을 눈에 담고 싶은 참가자들은 오는 11일부터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수하면 추첨을 통해 결정됩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경재 / 영상편집 : 이종진>

김대영 16060419@obs.co.kr

北에 'DMZ 둘레길' 통보도 하지 않아...생태계 파괴 우려도



【앵커】

새로운 역사를 연다는 의미가 있지만 한편에선 둘레길 조성 계획이 급속으로 준비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DMZ 공동이용 주체인 북한과 협의도 없었고 군 작전 장애와 생태계 파괴 우려도 큼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경기도 파주에서 진행됐던 비무장지대 일대 방문 행사.

베를린 장벽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었던 독일 관계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정오쯤 이통이 전면 금지되는 등 일정이 40여 분 간 중단됐습니다.

상당수가 경계 군사구역으로 진입하면서 군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군 관계자: 경기도와 협조된 생태탐방로가 있고 '거기와 벗어난 지역으로 가겠다', 저희는 당연히 출동해서 '여기로 오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았고...]

이처럼 DMZ와 그 일원은 군사적인 위험과 변수가 많은 곳입니다.

실제로 평화둘레길 중 파주와 철원 코스는 군사분계선 코앞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관광객 안전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DMZ의 평화적 이용 주체는 남북 모두'라고 했던 대통령 발언의 취지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3.1절 기념사): 생태평화 관광을 하든, 순례길을 걷든, 자연을 보존하면서도 남북한 국민의 행복을 위해 공동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태계 파괴와 난개발 우려도 제기됩니다.

도로 안보견학장 등을 석달 안에 세우겠다는 만큼 '마구잡이 공사'로 이어질 공산이 큼니다.

유엔사령부 승인 전에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남북 철도-도로사업과 관련해 '속도조절'을 요구한 유엔사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이시영 / 영상편집: 장상진>

연천~철원 DMZ 두바퀴로 달린다

6월 1일 '2019 Tour de DMZ'
민간인 통제 구역 등 56km 코스
경기도, 내달 14일까지 참가 모집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경기도가 자전거를 타며 DMZ(비무장 지대)의 생태·역사·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2019 Tour de DMZ(투르 드 디엠지·포스티)'를 개최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투르 드 디엠지'는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와 강원도 두 광역지자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자전거 대회다.

지난해는 강원도 철원에서 출발해 경기도 연천에 도착하는 코스로 전국에서 1700여명이 참가했다. 올해는 6월 1일 오전 10시 경기도 연천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강원도 철원 공설운동장에 도착하는 56km 코스에서 열린다. 도는 참가자 2000여명을 오는 5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참가자들은 오전 10시 연천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연천교차로~신탄리역~백마고지역~DMZ 평화문화광장~



고석정 사거리~철원 공설운동장에 도착하는 56km를 달리게 된다.

특히 작년에 큰 호응을 얻었던 참가자 기록을 계속하여 순위권 매기는 '경쟁부문'을 확대해 참가자들의 흥미를 높인다. 1~2차 두 구간의 기록을 측정해 남녀 각 1~5위까지 시상도 진행한다.

1차 기록계측 구간은 경기도 연천교차로에서 도신로 삼거리까지 10km 구간으로 3번 국도를 따라 달리는 코스다. 2차 기록계측 구간은 철원 DMZ 평화문화광장에서 삼사리 삼거리까지 총 12.3km다. 평소에는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으로 DMZ 남북한계선을 따라 이어지는 코스라는 점에서 이번 대회의 백미로 여겨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인천광역시 송도 경원루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관광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가 속해 비무장지대(DMZ) 관광 활성화에 강조하면서 "미래세대가 평화와 안보를 생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리도록 평화관광·환경생태관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文대통령 "DMZ 평화·환경생태관광 적극 지원"

송도서 '확대국가... 전략회의'

새거점도시 육성 '관광부활'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2017년부터 매년 1회씩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것은 창제된 관광산업에 부활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

로 풀이된다. 회의에는 이날엔 총리와 관광 현안 관련 부처 장·차관, 인천광역시장 등 지방 자치단체 관계자, 관광 유관기관 및 민간 사업체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에게 호의적인 아시아 국가와의 교류 확대, 우리 문화와 기술이 관광 잠재력"이라며 "새로운 관광 거점도시 지정·육성, 관광 벤처, 청년창업 지원 강화 등의 대

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을 통해 한국 관광을 부흥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비무장지대(DMZ) 관광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미래세대가 평화와 안보를 생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리도록 평화관광·환경생태관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인천 송도에서 회의를 개최한 배경을 설명하며 "인천은 관광

산업의 성과와 도전과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시로, 인천공항을 통해 관광객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지만 인천에 체류하기보다 다른 도시로 향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인천시민과 민간, 지자체가 함께 노력해 복합리조트 집적화, 마이스(MICE)산업, 크루즈관광을 새로 개발하고 협경지역의 역점을 평화관광으로 승화시켰다"고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인천광역시와 관광 스타트업 사례 발표를 청취한 후 송도의 대표적 복합문화공간인 송산공원 내 캐이슨 24에서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6월 1일 '뚜르드 디엠지' 힘찬 페달... DMZ 함께 달려요

자전거를 타며 DMZ의 생태·역사·문화 등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2019 Tour de DMZ(이하 뚜르드 디엠지)'가 6월의 첫날 성대히 막을 올린다.

경기도는 2일 '뚜르드 디엠지'에 참여할 참가자 2천여 명이 모이는 5월 14일 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뚜르드 디엠지'는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와 강원도 두 광역지자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자전거 대회다.

지난 2013년 정년 60주년을 기념 경기 위해 경기도가 단독으로 개최했으며, 2015년부터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DMZ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고자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주최해 왔다.

지난해는 강원도 횡령을 출발해 인천에 도착하는 코스로, 전국에서 1천 700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는 6월 1일 오전 10시 인천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인천교차로~신탄리역~백대고지역~DMZ 평화문화공원~교서정 시거리~송림 공설운동장에 도착하는 56km 코스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참가자 기록을 계속, 순위를 매기는 '경쟁부문'을 확대해 참가자들의 흥미를 높일 예정이다. 1~2차 두 구간의 기록을 총점표로 나눠 각 1~5등까지 시상도 진행

된다. 다음달 14일까지 2천명 모집

인천~철원 공설운동장 56km

경기부문 확대 시상... 흥미진진

한다. 1차 기록계 속 구간은 인천교차로에서 도신로 삼거리까지 10km 구간으로, 3번 국도를 따라 달리는 코스다. 이어 2차 기록계 속 구간은 철원 DMZ 평화문화공원에서 삼사리 삼거리까지 총 12.3km다. 장소에는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으로, DMZ 남북한계선을 따라 이어지는 코스라는 점에서 이번 대회의 재미로 여겨진다.

이 밖에도 참가자들에게 자전거 관련 기념품과 음식을 제공하며 체어리던 및 군에대 공연, 자전거 느리게 타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참가권수는 오는 5월 14일까지 공식 홈페이지(www.tourde-dmz.co.kr)를 통해 진행되며, 비경쟁 부문도 있어 자영업자 등 소인원만 아니라 자전거 초보 지도 참가자 가능하다. 또 참가자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참가비는 시클버스 이용 시 3만 원, 비 이용 시 1만 5천 원이다.

산경성 도 평화협력국장은 "'뚜르드 디엠지'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지역 간 교류를 이끌고 상생발전하는 협력의 상징"이라며 "평소에 가기 어려운 DMZ 일원을 자전거를 타고 달려볼 수 있는 행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호기자



인천교차로에서 평화 DMZ 지역을 자전거로 달릴 수 있는 '2019 Tour de DMZ(뚜르드 디엠지)'에 참여할 참가자 2천여 명이 모일 것이라고 경기도가 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뚜르드 디엠지'에 참가해 DMZ 지역을 달리고 있는 자전거 동호인들. 경기일보DB

文 “DMZ평화관광 적극 지원”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비무장지대(DMZ)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미래세대가 평화와 안보를 생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누리도록 평화관광·환경생태관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천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인사말에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지구 최후의 냉전지 한반도는 역설적으로 평화관광·환경생태관광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세대가 겪은 분쟁의 시대, 자연 파괴의 시대를 벗어나야 한다”며 “이미 DMZ 안보관광 관광객 숫자가 연간 최대 317만명을 기록했다. 평화·생태관광이 더해지고, 한반도 평화가 무르익는다면 관광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남북 화해분위기를 바탕으로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문 대통령의 언급은 이 중 DMZ를 중심으로 한 ‘평화관광’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나라다. 공룡 화석부터 ICT에 이르는 수십만 년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가 있다”라며 “또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러내며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국 사람을 만나면 한국에 대



한 호감이 매우 커졌다”라며 “특히 촛불혁명 후 평화롭게 민주주의를 살려낸 수준높은 시민의식에 호감이 크다”라고 했다. 문 대

통령은 “한류가 만드는 호감은 더 폭발적”이라며 “어느 나라에 가도 K팝과K드라마를 말한다. BTS(방탄소년단) 멤버의 고향인 부산, 대구, 광주, 울산이나 싸이가 노래한 강남, 원빈이 결혼식을 한 강원도 밀밭 등이 인기 있는 관광지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도전과제도 많다”며 “한반도정세 문제로 중국인 단체관광이 급감해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은 것은 뼈아픈 일”이라고 떠올렸다.

다만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중국 관광객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며, 한중항공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양국간 관광의 도약 기회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 관광시장의 잠재력도 무궁무진하다.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 확대도 큰 기회”라며 신남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관광산업은 경제발전의 핵심 동력이다. 취업 유망계수가 제조업의 2배가 넘는다”며 “관광도 교역처럼 국제적인 총력 경쟁 시대다. 경쟁을 이겨야 후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정부를 독려했다. 이어 “국가관광 전략은 ‘우리가 어떤 점에서 매력적인지’에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 가치를 알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재득기자

'생태·역사 보고 DMZ' 자전거로 달리세요

'투르드 디엠지' 6월1일 개최 5월14일까지 공식홈피 접수

세계 유일 분단국가의 상징이자 생태·역사의 보고(寶庫)인 DMZ 일대를 자전거로 달리는 '2019 Tour de DMZ' (투르드 디엠지)가 오는 6월 1일 열린다.

경기도는 올해 투르드 디엠지 참가자 2천여 명을 5월 14일까지 모집한다.

2월 경기도에 따르면 '투르드 디엠지'는 평화시대를 선도하는 경기도와 강원도 두 광역지자체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자전거 대회다.

지난 2013년 정전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경기도가 단독으로 처음 개최했으며, 2015년부터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상생협력 차원에서 DMZ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 협약을 체결해 공동으로 주최해왔다.

지난해는 강원도 철원을 출발해 경기도 연천에 도착하는 코스로 전국에서 1천700여 명이 참가했다.

올해 대회는 6월 1일 경기도 연천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강원도 철원 공설운동장에 도착하는 56km코스로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오전 10시 연천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연천교차로 ~ 신탄리역 ~ 백마고지역 ~ DMZ 평화문화광장 ~ 고석정 사거리 ~ 철원 공설운동장에 도착하는 56km를 달리게 된다.

특히 작년에 큰 호응을 얻었던 참가자 기록을 계속해 순위를 매기는 '경쟁 부문'을 확대했다.

1~2차 두 구간의 기록을 측정해 남녀 각 1위~5위까지 시상도 진행한다.

1차 기록계측 구간은 경기도 연천교차로에서 도신로 삼거리까지 10km, 2차 기록계측 구간은 철원 DMZ평화문화광장에서 상사리 삼거리까지 12.3km 코스로 구성됐다.

평소에는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으로 DMZ 남방한계선을 따라 이어지는 코스라는 점에서 이번 대회의 백미로 여겨진다.

또 참가자들에게 자전거관련 기념품과 증식을 제공하며, 치어리딩 및 군악대 공연, 자전거 느리게 타기 등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개최할 계획이다.

참가접수는 오는 5월 14일까지 공식 홈페이지(www.tourde-dmz.co.kr)를 통해 진행되며, 비경쟁 부문도 있어 자전거 동호인뿐만 아니라 자전거 초보자도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참가자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참가비는 셔틀버스 이용시 3만 원, 미이용시 1만5천 원이다.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투르드 디엠지는 경기도와 강원도가 지역 간 장벽을 허물고 상생발전 하는 협력의 상징"이라면서 "평소에 가기 어려운 DMZ 일원을 자전거를 타고 달려볼 수 있는 행사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영민기자

기호일보

2019년 04월 03일 (수)

스포츠 20면

경기도 '투르 드 DMZ' 참가 접수

경기도가 '2019 Tour de DMZ'(투르 드 디엠지) 참가자 2천여 명을 5월 14일까지 모집한다. 도와 강원도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투르 드 디엠지는 자전거를 타며 DMZ의 생태·역사·문화를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대회다. 올해는 6월 1일 오전 10시 연천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강원도 철원 공설운동장에 도착하는 56km 코스(연천교차로~신탄리역~백마고지역~DMZ 평화문화광장~고석정 사거리~철원 공설운동장)에서 열린다.

특히 참가자 기록을 계속해 순위별 매기는 '경쟁부문'을 확대했다. 1~2차 두구간의 기록을 측정해 남녀각 1~5위 시상도 진행한다. 1차 기록계측 구간은 연천교차로에서 도신로 삼거리까지 10km 구간으로 3번국도를 따라 달리는 코스다. 2차 기록계측 구간은 철원DMZ평화문화광장에서 상사리삼거리까지 총 12.3km다.

참가 접수는 공식 홈페이지(www.tourde-dmz.co.kr)를 통해 진행한다. 비경쟁 부문도 있어 자전거 동호인뿐만 아니라 자전거 초보자도 참가할 수 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2019. 4. 2.



문재인 대통령과 박남춘 인천시장이 2일 송도 경원재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활력 못하고 있다.

사진=김민준

한발 앞선 道... 관광산업 탄력

DMZ·e스포츠 등 개별전략 이미 수립 '경쟁력 확보'

정부가 한류·e스포츠·DMZ 관광 등을 담은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경기도의 관광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미 관광벨트를 만들기 위해서 개별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

2일 인천 송도 경원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BTS(방탄소년단)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촉발된 한국에 대한 관심이 관광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한류와 비무장지대(DMZ) 관련 콘텐츠를 보강한다는 구상이다.

이같은 정부 계획은 이미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분야다.

도는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2월 초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내놓으며 기존 역사, 체험탐방지 외에 드라마 촬영지, 국내 아이돌그룹과 연계한 관광지 등 한류를 활용한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국내외 여행업체와의 다양한 특수목적상품개발과 해외 온라인·미디어 마케팅을 강화한다.

특수목적상품(Special Interest Travel)은 김치만들기체험, 단채간 교류체험 단순 여행이 아닌 특별한 국

한류 활용 관광 개발부터 생태평화지구 조성까지 도 "마케팅 강화 가속도"

적을 가진 관광상품을 말한다.

도가 올해 도비 24억5000만원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90억5000만원을 들여 모두가 묻어없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DMZ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도가 독일 베를린 장벽을 세계적 관광 명소로 재탄생시킨 이스트사이드 관리위원회와 DMZ를 글로벌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또 DMZ 평화정거장 사업 등 관광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DMZ 생태환경을 활용하기 위해 권역별(김포·파주·연천) DMZ 생태평화지구 조성도 한다.

정부도 국민이 DMZ 경기를 체험하도록 민홍선 이북지역 일부와 철거감시초소(GP)를 잇는 '평화의 길'을 통해 삼면기 서부·중부·동부 등 3개

시범 코스로 운영하고 DMZ 안에서는 평화관광 테마역차도 경의선에서 삼면기 시범 운행할 예정이다.

관료령 출입원차도 원희의 남북정상회담 장소인 자유의 집, 도보다리 등을 관광코스로 만들고, 각종 문화예술·국제행사도 자주 개최할 예정이다. 전쟁의 비극을 알리고 평화와 통일을 강조하는 '평화관광 해설사'를 양성하고, '기억의 박물관' 조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DMZ 관광거점으로 서부권의 인천과 파주, 중부권의 철원, 동부권의 고성을 지목했다.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도는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 조성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7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모는 도내 e스포츠 전용경기장 부지 선정에 관한 것으로, 도는 1곳의 지자체를 선정해 오는 2020년까지 100여 원을 지원해 경기장 조성에 나선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는 해안, 갯벌, 산악, 강, 숲, DMZ 등 생태자원이 다양하게 분포돼 있고, 각종 IT분야와 영상분야가 발달된 곳여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이 가능하다"며 "분야별 관광콘텐츠 개발도 누구나 찾아오는 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주 기자 baek@incheonbo.com